

# 심층분석보고서

한화오션-회계

2026.03.31

## 1 장. 산업 분석 (조선·해양 산업)

**1.1 산업 정의·시장 구조:** 조선·해양 산업은 대형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설계·건조하는 기간산업입니다. 주로 상선(상업용 선박: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 특수선(군함·잠수함 등 방산 선박), 해양플랜트(석유·가스 시추선, FPSO 등) 세 부문으로 나뉘며, 한국 조선업은 이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왔습니다. 산업 특성상 **소수 대형 조선소 중심의 과점 시장 구조**를 보이고, 프로젝트 단위 수주생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 건의 선박 발주는 계약-설계-조달-건조-시운전-인도에 이르는 긴 사이클을 가지며, 조선소는 글로벌 해운·에너지 기업이나 정부(해군 등)와 **B2B/B2G 사업**을 전개합니다.

**1.2 가치사슬과 수익 구조:** 조선업의 가치사슬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 소재·장비 조달(강재, 엔진, 전장 등) → 블록 제작 및 용접 조립 → 진수 및 해상 시운전 → 인도 후 A/S 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부가가치 단계는 설계기술과 건조 역량**이며, 고부가 선박일수록 기술력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사는 프랑스 GTT 사의 LNG 화물창 기술 등을 활용한 LNG 운반선 건조에 강점이 있는데, 이처럼 **고난도 설계·공법을 요하는 선종**에서 높은 마진을 확보합니다. 반면 범용 벌크선 등은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공세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조선소는 주로 건조 대금을 **마일스톤에 따라 선수금**으로 받고, 최종 인도 시 정산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별 원가 관리가 중요하며, 공정 지연이나 원자재가격 상승 시 이익이 잠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조선사들은 **수주선가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을 5~10%대로 개선**하며 예전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1][2].

**1.3 시장 규모·성장률:** 조선 산업은 **강주기(Cyclical)** 산업으로, 글로벌 경기와 해운 물동량, 에너지 수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 시황 악화로 침체를 겪었으나, **2021~2022년 이후** 환경규제 대응 신조선 수요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약 7,678만 CGT(표준선 환산톤수)까지 급증했다가 2025년에는 5,643만 CGT로 27% 감소하는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3]. **2025년 글로벌 수주액**으로는 약 1,000억 달러대 수준이며, 한국 조선업계는 2025년 전년 대비 8% 증가한 **1,160만 CGT(247척, 세계 21% 점유)**를 수주하며 선방했습니다[4]. 같은 기간 중국은 3,537만 CGT(1,421척, 63% 점유)로 전년 대비 35% 급감하여,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4]. **시장 규모**는 선종별로 상이하지만, LNG 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단가는 척당 2~3억 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 Clarkson 신조선가지수는 2020년말 125수준에서 2025년말 184.6으로 약 **47% 상승**하여 선가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5]. 향후에도 IMO 환경규제에 따른 대체연료선, 노후 선박 교체 수요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은 둔화되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6][7].

**1.4 최근 3~5 년 주요 트렌드:** 조선·해양 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및 규제 변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탈탄소:** IMO 의 2030/2050 온실가스 저감 규제와 탄소중립 기조로, 선주는 LNG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향후 암모니아·수소 연료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머스크는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했고, 한국 조선 3 사는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완전 무탄소 추진 LNG 선 'Ocean 1'** 개념선을 2025 년 공개하여, 화물창 기술 개선으로 증발가스(BOG) 저감 및 자율운항까지 내다본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8]. 또한 각 사는 신재생에너지 해상플랜트(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CO<sub>2</sub> 포집장치 등)로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 **디지털 전환: 스마트십 및 스마트야드** 기술 도입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소 현장에는 로봇 용접, IoT 기반 설비모니터링, AI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3D 모델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시뮬레이션으로 설계오류를 줄이고 있습니다. 완성 선박에는 **자율운항** 기술과 원격 관제 시스템을 적용, 선박 운항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서비스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전통 조선업의 **공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꾀하는 방향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및 정책 변화:** 미·중 갈등 등 지정학 이슈로 **해운 및 해양안보**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국 정부가 자국 조선 산업을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군함 증강과 상업선대 현대화를 위해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등 우방과 기술협력을 모색합니다[9]. 한편 EU 는 자국 크루즈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있고, 중국은 국유 조선사를 합병(CSSC 등)하여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15) 변화로 진행률 기준 매출 인식 투명성 제고, ESG 요구로 환경·안전 투자가 증가하는 등 규제 측면 변화도 산업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현재 **글로벌 조선업 실적 1~3 위는 중국과 한국 업체들**입니다. 중국은 중국선박공업그룹(CSSC, CSIC 합병) 산하 다수의 조선소(상하이외고교조선, 대련조선 등)가 **물량 기준 60% 이상**을 점유하며, 주로 벌크선·컨테이너선 등 **볼륨 전략**을 구사합니다[10][11]. 한국은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그룹(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중공업 등), 삼성중공업의 **3 대 조선사 체제**로 세계 시장 **20% 내외**를 담당합니다[11]. 한국 조선 3 사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선박 한 척당 평균 선가가 중국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고급품 위주 포트폴리오입니다[10][12]. 일본은 과거 강자였으나 이마바리조선 등을 제외하면 시장 점유가 크게 줄었고, 주로 자국 발주 위주 틈새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탈리아 Fincantieri(크루즈선), 노르웨이 Kongsberg(특수선 설계) 등 **특정 선종에 전문화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경쟁 구도**는 중국이 물량공세로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한국은 **기술·품질 경쟁**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최근 중국도 대형 LNG 선, 고부가 컨테이너선 수주에 나서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 한국 업체들은 R&D와 **제품 믹스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제재 이후 한국이 LNG 운반선 발주를 독식하는 등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부 누리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조선 산업은 중국(가격) vs 한국(기술)의 양강 구도** 속에, 각국 정책과 해운·에너지 업황에 따라 판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장입니다.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한화오션 포지셔닝

**2.1 동종 업계 주요 기업 선정:** 비교 대상으로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그룹(KSOE)**,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참고로 중국의 **CSSC** 그룹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이들은 모두 종합조선사로 상선과 해양플랜트, 일부 방산선박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HD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 KSOE):** 세계 1위 조선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 현대미포 3개 조선소를 거느린 **조선 지주사**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가장 광범위하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선, LNG 선, LPG 선, 중소형 정유운반선, PC 선까지 커버합니다. 또한 **엔진제작(Himsen 엔진)**, 선박 기자재 회사, 해양플랜트 건조능력을 갖추어 **수직계열화**가 진전되어 있습니다. 강점은 **규모의 경제와 건조속도로**, 다품종 대량건조에 효율성이 높습니다. 약점은 사업영역이 넓다 보니 일부 선종(예: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 경쟁에서 삼성/한화와 경합하며, 과거 해양플랜트 사업부 손실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로봇·자율운항 스타트업(아비커스 등)과 협업하고, 친환경 연료 추진 기술 개발에 그룹 역량을 모으는 등 **디지털·친환경 분야 선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삼성중공업:** 한국 2위 조선사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LNG 선**에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2만 4000TEU 급) 다수를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드릴십 등 해양시추선 분야에서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강점은 **정밀한 품질관리와 공정설계 능력**으로 복잡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합니다. 다만 2010년대 후반 해양 부문 연이은 손실과 수주절벽으로 재무 악화가 있었고, 2020년대 들어서야 수주가 회복되며 구조조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성은 특히 **친환경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ICT 역량을 활용한 선박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최근 대형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고 LNG 선 등 **수익성 위주 수주전략**으로 전환하여 2025년 이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전통적으로 한국 3 위 조선사였으며, 2023 년 한화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등 상선과,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전투함 건조**를 담당하는 특수선 분야, 그리고 해양플랜트로 구성됩니다. 강점은 **LNG 운반선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으로, 특히 한화오션은 고압엔진(ME-GI 등) 기반의 LNG 추진선 기술에 강점을 보여 유럽 선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13][14]. 또한 잠수함(KSS-III 장보고-III 등)과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방산 노하우를 지녀 **군용 함정 분야 경쟁력**이 높습니다. 약점으로는 과거 대우조선 시절 **재무관리 미흡과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으로 부채비율이 1500%까지 치솟았던 위기가 있었습니다[15][16]. 그러나 한화 인수 후 2 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과 흑자전환으로 2025 년 부채비율이 약 226% 수준까지 급락하며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했습니다[17][16]. 한화오션은 현재 **“선별 수주” 전략**으로 저가 수주를 지양하고 LNG 선 등 고부가 프로젝트 위주로 수주 잔고를 채우고 있어 안정적인 성과 개선세를 보입니다[18][19]. 이는 2025 년 영업이익 1.16 조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을 10% 내외로 끌어올린 배경입니다.
- **중국 CSSC 그룹 (참고):** 중국 국유 조선사들의 통합체로 **전 세계 신조선 물량 기준 1 위**입니다. 다수의 조선소를 거느려 연간 수백척 이상 건조가 가능하며, 가격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한국이 강점을 가진 LNG 선 분야에도 도전하여 자국 LNG 선 기술을 확보 중이며, **자국 해운사 (COSCO 등)의 물량 지원**을 등에 업고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의 품질·납기 신뢰성**에서 한국 대비 약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내수 발주 보호로 단기간에 성장했으나, 민간 선사 입장에서 복잡한 선형이나 첨단 선박은 여전히 한국조선소를 선호하는 추세가 남아 있습니다.

**2.2 한화오션의 포지셔닝:** 한화오션은 **“고부가가치/프리미엄 B2B 조선사”**로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품질과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선주들을 공략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전략입니다[18]. 특히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점유율 상위권으로, 2022년 말 기준 한화오션 LNG 선 수주잔고만 약 \$160억 (23조원)에 달해 전체 제품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20]. 이는 곧 **LNG 선 명가** 이미지를 굳히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B2G 분야(방산)**에서도 대한민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해군을 고객으로 하는 **특수선 사업**을 전개하여, 민수 조선사 중 드물게 **상선+방산 이중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는 경기침체 시 방산으로 손익을 방어하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사업 모델 측면에서, 한화오션은 완성 선박 판매 외에도 **평생 서비스(Life-cycle service)**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군 함정에 대해 **창정비(MRO)**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21][22], 상선에 대해서는 운항 데이터 모니터링 서비스, 개조공사 등을 제공하여 수익 다각화를 모색 중입니다. **채널**은 대부분 **직접판매(B2B)**로 국제 입찰이나 수주 상담을 통해 계약을 따내며,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한화그룹 편입 후에는 그룹 계열사의 해외 네트워크(예: 한화상사, 한화유럽 등)를 활용한 **영업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한화오션의 시장 포지션은 **"High-end & Specialty 조선사"**로 요약되며, 이는 곧 한화오션이 한국 내에서는 기술집약적 수주를 주도하고 세계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품질과 신뢰로 선택받는 틈새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5년 한화오션이 수주한 선박 52척 중 절반 이상이 VLCC·LNG 선 등 고가 선종이었고, 특히 **VLCC 20척(비중 약 40%)**으로 대형 유조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23][24]. 반면 벌크선 등 저가 물량은 의도적으로 수주하지 않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2.3 최근 3~6개월 내 큰 이슈:** 최근 한화오션 및 조선업계에는 몇 가지 굵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 **한화오션의 해상풍력 진출:** 2025년 12월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 우이도 해역 39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EPC 턴키 프로젝트(총 2.64조원 규모)를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 몫은 약 1.97조원이며, 이 프로젝트에서 **국내 최초 15MW급 터빈 설치선(WTIV)**을 한화오션이 직접 건조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25][26]. 이를 위해 신설된 **에너지플랜트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EPC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 전통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사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뛰어들어본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화오션이 **해양 에너지 시장 선도기업**을 비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 시장 및 방산 협력:** 2025년말에서 2026년초에 걸쳐, 미국 행정부의 조선 부흥 정책에 호응하여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조선소(Philly Shipyard)**를 전진 기지로 **미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필리조선소 지분 40%를 보유한 바 있으며, 미국 **'Golden Fleet'** 계획에 따라 신형 프리깃함을 한화와 협력 건조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27]. 특히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수요에 대비하여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 가능성을 타진, 관련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9][27]. 이는 한화오션의 방산 기술을 미군 시장까지 넓힐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성사된다면 해외 방산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군사자산의 국외 건조는 넘어야 할 정치적 허들이 있어, 어디까지나 **잠재적 전략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조직·인력 구조조정 및 실적:** 한화그룹 인수 후 진행된 **인력 효율화와 조직문화 개선**도 최근 이슈입니다. 2023년 말~2024년 초에 걸쳐 한화오션은 일부 지원부서 슬림화, 유사 기능 통합 등을 통해 **관리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시에 한화 출신 경영진이 투입되어 **수익성 중심의 관리 DNA**를 이식했습니다[28][29]. 그 결과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5년에는 사상 최대 수준인 영업이익 1 조원을 돌파하는 등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30][31]. 또한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후 한화오션은 2026년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유지,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재무건전성 목표**를 공개하며 시장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 **기술 혁신:** 기술 측면으로는 앞서 언급한 친환경·디지털 분야에서 한화오션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9월 Gastech 등 국제행사에서 완전 무탄소 추진 LNG 선 개념, **자율운항 선박 Vision 2030** 등을 발표하며 기술 리더십을 과시했고[8], 11월에는 국내 HMM으로부터 차세대 친환경 컨테이너선(13,000TEU 급 4척, 1조원 규모)을 수주하여 **국내 해운사와의 협력 강화** 및 친환경 선대 구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32][33]. 또한 한화오션은 생산현장에 AI 기반 용접 불량 검출,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검사 효율화 등 스마트야드 기술을 속속 도입하여 **생산성 혁신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이는 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향후 **조선업 인력세대 교체에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요약하면, 한화오션은 최근 **신사업 진출(해상풍력), 글로벌 방산 협력 추진, 재무 턴어라운드, 기술력 과시** 등의 굵직한 이슈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에게도 “안정기에 접어든 기존 회사”가 아니라 **성장과 변혁의 모멘텀에 있는 회사**로 비춰질 것이므로, 최신 동향에 부합하는 이해와 전략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 3장. 한화오션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 (부문별 매출 비중):** 한화오션의 사업은 크게 **상선사업부, 특수선사업부, 에너지플랜트사업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상선 부문이 약 **70~80%**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특수선(방산함정)이 약 15%, 에너지/해양플랜트가 5% 내외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2][34]. 실제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상선사업부 매출은 2 조 4,639 억원으로 전사 매출의 81.5%였고, 특수선 3,750 억원(12.4%), 해양 1,024 억원(3.4%) 수준이었습니다[2][21]. **상선사업부** 내에서도 **LNG 운반선 매출 비중이 약 60%**에 달하며, 한화오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2][34]. 특수선은 장보고-III 잠수함, KDX-III 구축함 등 주력 함정 건조와 창정비 매출로 구성되고, **안정적 이익률(분기 영업이익률 >8%)**을 시현 중입니다[21][22]. 해양플랜트는 기존 수주잔량이 감소하여 매출 비중이 미미하지만, 앞서 언급한 **해상풍력 EPC 등 신사업** 수주로 앞으로는 에너지플랜트 부문 매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한화오션은 **LNG 선 위주의 상선 매출 + 방산함정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종사 중 가장 **고부가가치 선종 편중**이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2025년 영업이익률 9.6%로 전년 대비 8.7%p 상승하는 **수익성 퀀텀점프**를 이루었습니다[1][35].

**3.2 중장기 전략 방향:** 한화오션은 한화그룹 편입 후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해양+에너지+방위산업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36]. 구체적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부가가치 선박 집중:** **Selective Order** 전략을 지속하여, LNG 운반선·초대형 컨테이너선·친환경 추진선 등 수익성 높은 선종 위주로 수주합니다[18]. 이미 2023~25년 수주한 프로젝트들은 과거 대비 단가가 높아 2026년 이후 매출로 이어질 때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담보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34][37]. 향후 암모니아 추진선, 전기추진 군함 등 신기술 선박 시장을 선도하여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 **방산사업 확대:** 그룹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함정 통합솔루션 기업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한화시스템의 레이더·전투체계를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함정에 탑재하는 일괄 패키지로 국내외 해군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호주·캐나다 등 잠수함 도입국, 동남아 신흥 해군을 대상으로 **수출형 군함**(예: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추진잠수함** 기술 확보에 대비해 R&D를 진행 중이며,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 사업화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9][27].
- **신재생 및 해양에너지 사업:** 해상풍력 EPC 첫 진출을 계기로,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 해양수소생산 설비 등 **그린오션 분야**를 신성장동력화합니다. 한화그룹의 태양광·수소 사업과 연계해, 해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상 플랫폼(예: 부유식 LNG 생산설비 개조)에서 저장·운송하는 **토털 에너지 솔루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해양플랜트(해저 파이프라인, FPSO 등) 기술 인력을 해상 CO<sub>2</sub>포집저장(CCS)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사업**도 모색합니다.
- **디지털 혁신:** 한화오션은 그룹 차원의 DX 역량을 활용해 **Smart Yard**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통합 생산정보 플랫폼**을 출범시켜, 설계-생산-납품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고 AI로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2030년까지 부분 자율운항 상선을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조선소”에서 **“첨단 기술기업”** 이미지로 변모하면서, 향후 **신사업 진출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 전략입니다.
- **지속가능경영:** ESG 측면에서 **탈탄소·안전경영** 강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LNG 등 친환경선 수주로 글로벌 해운 탈탄소에 기여하고 있고, **야드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2025년 환경투자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오염물질 저감에 집중했고[38], 2040년까지 **탄소중립 야드** 구현을 선언하는 등 지속가능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 3.3 차별화 포인트: 한화오션만의 강점과 차별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선 기술력:** 한화오션은 2023 년 세계 최초로 200 번째 LNG 운반선을 인도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39]. **Mark-III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 적용 경험, 고압 이중연료 엔진 적용 노하우 등에서 동종사 대비 반박자 앞서 있습니다. 실제 유럽 선주들은 “한화오션의 LNG 고압엔진 탄소배출 저감 기술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40][41]. 이렇듯 **LNG 선박 분야 퍼포먼스**는 한화오션의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 **방산 DNA 와 그룹 시너지:** 타 민간 조선사들과 달리 **잠수함 설계-건조 DNA** 를 가진 점은 유일무이한 경쟁력입니다. 나아가 모회사 한화가 미사일, 레이더, 추진체 등 첨단 방산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한화오션은 이를 활용한 **통합 함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구축함 사업에서 선체+무장 일괄 패키지를 제안하면, **사업 범위와 부가가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 **선별 수주에 따른 높은 품질관리:** 이미 수주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난도가 높고 마진이 확보된 프로젝트만을 수행하기에, **프로젝트 관리 품질**이 높습니다. 이는 곧 납기 준수율, 공정상의 완성도 등에서 고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2025 년 한화오션의 선박 인도 실적을 보면 큰 지연 없이 적기에 인도되었고, **동일 사양 선박 7 척을 일괄 수주하여 생산 효율과 수익성을 극대화**한 사례도 있습니다[40][42]. 대규모 프로젝트에 특화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금융안정성과 오너십:** 한화 그룹 계열로 편입됨에 따라, 과거 대우조선 시절과 달리 **재무적 안정성**이 뒷받침됩니다. 그룹 지원 하에 2 조원 유상증자, 1.2 조원 규모 영구채 발행 등으로 현금을 수혈받았고 부채비율을 200%대 초반까지 떨어뜨렸습니다[17][16]. 또한 민간 대기업 산하로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이전 국영-공기업 분위기에서 탈피해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된 점도 문화적 차별화 요소입니다. 실제 한화오션 직원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오너십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는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품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균형:** LNG 선과 같은 호황기 수혜 선종 외에도, 해군 잠수함 등 **장기 프로젝트**를 병행함으로써 사이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 년 3 분기 특수선 부문은 전년 대비 매출 91% 증가하며 전사 실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21][22].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경쟁사 대비 리스크 대응력을 높여주는 차별점입니다.

### 3.4 리스크 요인: 반면 한화오션이 직면한 위험 요소 및 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 사이클 및 수주잔량 리스크:** 조선업 초호황이 정점에 달한 이후 **신규 발주 둔화**가 시작되었습니다[6][7]. 실제 2025 년 글로벌 발주량 감소로 2026~2027 년 인도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현재 3~4 년치 안정적 일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만약 업황 침체가 심화되면 **수주공백**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주를 하다 보니 경쟁사 대비 물량 확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원가 및 공정관리 리스크:**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강재 가격, 공급망 차질, 환율 변동 등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과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고정가격 계약의 원가 초과** 위험은 여전히 잠재합니다. 다행히 현재 해양 부문은 거의 정리되었으나, 향후 해상풍력 등 신규 EPC 사업도 **공무원가 상승** 위험을 내포합니다. 또한 조선소 내 **노동조합 이슈**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노조는 과거 강경한 파업 전례가 있어 임금협상 등에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 년에도 노사협상 타결 비용 250 억원이 일회성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43][44].
- **경쟁 심화:** 중국 조선업의 기술 추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 년 전세계 수주량 65%를 가져갔으며[6][45], LNG 선도 국가 주도로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 만약 2~3년 내 중국 조선소가 LNG 운반선 건조 품질을 끌어올리고 저렴한 가격을 앞세울 경우, 한화오션의 핵심시장에 **가격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이 한화오션의 국내 최대 경쟁자로 남아 있는 한편,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국내 조선 3사 간 과당경쟁**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는 국내 인력 풀과 협력사 자원을 서로 빼앗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산업 전반 경쟁력을 약화시킬 리스크입니다.
- **인력 및 기술 유출 리스크:** 조선업 인력 고령화와 MZ 세대 기피 현상으로 **숙련 기술인력 부족**이 업계 공통의 난제입니다. 한화오션도 핵심 용접·도장 기능공들의 고령화, 일부 기술자들의 중동 등 해외 이직 사례가 있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방산기술, 조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가 중요한데, 과거 중국 경쟁사가 한국 조선소 출신 기술자를 채용하여 기술을 흡수한 사례들이 있어 이 부분도 경계해야 합니다.
- **재무구조 및 금융비용:** 비록 부채비율은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200%대이고, 이자비용이 연 1,500 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46][47]. 한화그룹 지원으로 채무 구조를 장기화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부담이 커져 순이익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 PF 보증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우발부채 가능성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2025 년 연속 흑자로 2026 년부터는 **배당 재개**도 검토 중이라 하며[48], 이는 재무안정성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평판 및 거버넌스:** 대우조선 시절 잦은 국책은행 지원과 경영비리 이슈 등으로 대외 신인도가 한때 추락했던 바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그룹사가 46%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은 여전히 산업은행 등 채권단 몫도 있어[49], **지배구조 복잡성**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안정적 민영화가 지속되고 성과로 증명하여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한화오션은 강점을 살린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업황 변동, 경쟁 구도, 내부 효율화** 등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균형감 있게 이해하고, 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4 장. 인재상·조직 문화·채용 특징

**4.1 공식 인재상 키워드와 해석:**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의 핵심 가치 아래 **Great Challenger** 를 인재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Great Challenger 란 “**주인의식, 월등한 차별성, 변화 수용성의 마인드셋을 갖춘 인재**”를 의미합니다[50][51]. 이를 풀이하면:

- **주인의식:**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몰입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주도하며, 문제 발생 시 주인으로서 신속히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원합니다[52][53]. 지원자는 이를 뒷받침할 **리더십 경험**이나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끈 사례**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 **월등한 차별성:** 기존 틀을 깨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내는 인재를 말합니다[54][55]. 즉 한 가지 핵심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끝까지 실행하여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실무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으로 나타나며, 예컨대 “**업계의 상식을 뒤집는 대담한 목표**”[56]를 세우고 성취한 경험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변화 수용성:**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입니다[57][58].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지원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 변화에 스스로를 맞춘 사례 (새로운 회계 기준 습득, 낯선 환경에서 성과 등)을 들며 **유연성과 학습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채용·평가에서 구체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면접에서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여 성과를 낸 경험은?**” (차별화),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나 변수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주인의식), “**최신 산업 변화에 대응해 자신이 노력한 것은?**” (변화 수용성) 등의 질문으로 검증됩니다. 공식 인재상 외에도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그룹 창립 이후 강조된 **신용(신뢰)**과 **의리(헌신)**의 가치도 중요하게 해석됩니다[59][60]. 이는 윤리의식, 동료와의 협업 태도를 뜻하므로, 정직하게 소통하고 **팀워크에 헌신**했던 경험을 함께 어필하면 좋습니다.

**4.2 조직 문화:** 한화오션은 2023년까지 공공기관 성격이 강했던 대우조선해양의 문화에서 탈피, **민간기업 한화의 문화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조선업 문화와 한화그룹 특유의 온정주의**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우조선 시절에는 연공서열과 Top-Down 의사결정 경향이 강했고, 노사관계도 대립적이었으나, 한화 편입 후 성과중심과 **수평적 소통**을 강조하는 변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직자 평에 따르면 “한화 계열로 바뀌며 **보고 체계 슬림화**와 합리적 의사결정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등이 MZ 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젊은 조직 문화**를 주문하고 있어, **워라벨 개선**과 **공정한 평가체계** 도입 등에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소 현장 특성상 여전히 **군대식 규율**과 **안전 최우선 문화**가 병존합니다. 정시 조회, 안전교육 의무화 등 현장 규율은 엄격하지만, 사무직 중심으로 **재택근무 시범, 유연근무제** 등도 도입되어 변화 중입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그룹 차원에서 Diversity(다양성)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지역·학벌보다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선언을 하여 “**능력과 직무중심 채용, 차별 철폐**” 기초를 밝힌 바 있습니다[61]. 전통적으로 거제 현장과 서울 본사의 문화 차이도 존재하는데, 본사는 전략·영업 부서로 비교적 개방적이고 글로벌 지향적인 반면, 거제 조선소는 생산현장 위주라 다소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입사원 유입으로 조직 분위기가 활기를 찾고 있고, 사내에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밀레니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화오션의 조직문화는 **전통 제조업의 안정성과 대기업 한화의 변화 추진**이 공존하는 형태로, 지원자는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수적 문화의 장점(체계, 안전)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문화를 선도할 **적극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상을 회사가 지향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3 최근 채용 공고 패턴:** 한화오션은 2023년 인수 후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3월에 진행하며, 설계, 생산관리, 연구개발, 경영지원 등 **25개 직무**에서 대대적으로 모집했습니다[62][63]. 이번 공채에서는 “**Begin Your First Wave**”라는 슬로건과 함께 공격적인 홍보를 했고, 일반전형 외에 **Global Challenger** 전형을 병행하여 **외국대학 졸업자나 어학능통자**를 별도로 선발했습니다[64][63]. 이는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맞춰 **해외 역량을 중시**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채용설명회에서는 모집 직무별 수행내용과 우대역량을 상세히 공개하고, 선배사원 인터뷰를 제공하는 등 **지원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이 두드러졌습니다[65]. 한화오션의 채용공고 톤은 전체적으로 **직무역량 중시**와 **챌린지 정신 강조**로 요약됩니다. 예컨대 회계 직무 공고에서도 “IFRS 회계결산, 손익분석, 자회사 회계체계 구축 지원” 등 **구체 업무를 나열**하고, 우대사항에 “SAP 경험, 원가·손익분석 역량, Power BI 활용 능력” 등

**실무 스킬**을 명시했습니다[66][67]. 이는 단순 스펙보다 **실제 역량**을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거의 모든 공고 말미에 **Great Challenger 마인드**를 언급하여, **도전·혁신 정신이 있는지**를 자소서와 면접에서 볼 것을 암시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경력직 채용도 활발했습니다. 인재풀 등록 형태로 경영지원(재무/회계), 특수선, 상선사업 부문별 수시 채용을 진행하며 **상시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68][69]. 이때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을 함께 만들어갈 분을 기다립니다”, “담대한 항해를 함께 할 인재” 등의 문구를 사용, **비전 공유형 어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에게 **주인의식과 팀워크 어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한화오션 채용은 **대규모 신입공채 재개와 수시경력 채용 병행, 직무역량 상세 명시, 글로벌/도전 역량 강조**가 특징입니다. 지원자는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역량을 해당 직무 기술서에 매칭시키고, 한화오션의 비전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4.4 서류/면접에서 강조되는 키워드·역량:** 한화오션은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지원동기 외에 **직무역량과 인재상 부합도**를 집중적으로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 공채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역량”을 기술하는 항목,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Great Challenger란 무엇이며, 그런 행동을 한 경험”을 묻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 사례 기준). 따라서 서류에서는 **해당 직무 전문지식/스킬**(예: 회계라면 IFRS 공부, SAP 활용 경험 등)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성취한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 합격 포인트입니다.

면접 전형의 경우, 1차는 **실무진 면접**으로 직무 관련 깊이있는 질문과, 지원자의 문제해결 경험을 많이 질문합니다. 가령 회계 직무 지원자라면 “전표 처리 시 오류를 발견하고 개선한 경험이 있나?”, “팀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도운 사례는?”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적합성과 논리적 사고**를 보려는 것입니다. 2차 임원면접에서는 **인성 및 조직적합성**이 검증됩니다. 한화오션 임원들은 지원자의 **열정, 협업, 충성도** 등을 중시하며, 종종 **압박면접 형태의 상황질문**으로 스트레스 대응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같은 **거시적 관점의 질문**도 예상됩니다. 이는 지원자가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을 갖췄는지 보는 것이므로, 앞서 분석한 산업·기업 이슈를 토대로 성의있는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역량 키워드는 **안전의식, 책임감, 소통능력**입니다. 조선소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에, 안전 수칙 준수 경험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평가합니다. 책임감은 주인의식과 맥락을 같이하며, 면접 질문으로 “실수나 실패를 겪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했는가?”가 나오곤 합니다. 소통능력의 경우 다수 부서와 협업이 일상인 업의 특성상, **협업 사례, 갈등 조정 경험** 등을 많이 묻습니다. 지원자는 STAR 기법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상황-과정-성과** 중심으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오션만의 색**을 띠는 키워드로 **"도전"**과 **"헌신"**을 들 수 있습니다. 전자는 새 사업·기술 개척 정신이고, 후자는 회사와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70][60].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 둔다면,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 5 장. 직무 분석 - 회계 (경영지원 부문 회계직)

**5.1 직무의 핵심 역할:** 한화오션의 회계 직무는 **재무제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 경영진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을 전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팀은 하루 단위로는 전표 처리와 자금 입출 내역 점검, 월 단위로는 **결산 및 손익 분석**, 분기/연 단위로는 **재무제표 확정 및 감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71][72].

- **일일(Daily) 업무:** 매일 회사의 **자금 상황 모니터링**과 **회계 거래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해외 선주로부터 선금이 들어오면 외화자산 계정에 정확히 반영하고, 협력사 대금 지급은 채무 계정을 정리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비용 지출 품의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 검토** 후 전표를 발행하고, ERP 시스템(SAP 등)에 거래를 입력합니다. 이때 거래가 복잡한 프로젝트 매출/원가에 연동되므로, **프로젝트 코드별로 수익·비용을 귀속**시키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현금일보 작성, 잔액 시제 확인** 등의 루틴도 수행합니다.
- **월간(Monthly) 업무:** 매월 말~익월 초에는 **월 결산 업무**가 집중됩니다[71]. 구체적으로, 당월 발생한 모든 매출·비용을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미지급 비용이나 매출누락이 없도록 **기간귀속 조정**을 합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건조 진행률(POC)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므로, 프로젝트별 공정률 업데이트에 따라 **매출 및 총당금 설정**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 중인 선박에서 예상 손실이 있다면 손실총당금을 쌓고[72], 환율 변동으로 평가해야 할 외화 자산/부채는 기말 환율로 재평가합니다. 그런 다음 **시산표 검토**를 통해 오류를 잡아내고, 부문별 손익분석을 실시합니다. "왜 상선부문 이익이 전월 대비 증감했는가" 등을 분석하여 경영진 리포트 초안을 작성합니다. 월결산은 통상 **5 영업일 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마감 후에는 각 부서에 주요 재무실적을 공유하고, 이사회 등 공식 보고용 자료 준비에 들어갑니다.
- **분기/연간 업무:** 분기별로는 **외부감사인 검토/감사**를 받습니다[73]. 이를 위해 분기 결산 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 주석작성, 연결조정 분개, 내부거래 제거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자회사 및 신설법인도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중요한데, 회계팀은 **자회사 회계체계 구축 지원**과 IFRS 회계정책 준수를 지도합니다[72]. 연말에는 **연간 감사**로 감사법인과 상세한 자료 실사를 진행하고, 주재무제표를 확정된 뒤 사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관련 업무, 외부 공시자료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연 1 회 필수 업무**들도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소화합니다. 연간 예산 수립이나 중기 재무전략 수립 시 재경실 내 타 부서(재무기획 등)와 협업하기도 하지만, 회계 직무 본연의 핵심은 **결산·보고 및 감사 대응**입니다.

**5.2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회계 담당자는 사내 여러 부서와 외부 기관 사이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 **내부 이해관계자:** 우선 **경영진(CEO/CFO)**이 주요 의사결정 이해관계자입니다. 회계팀은 매월 재무실적 보고, 재무제표 승인 설명 등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하며, 예상되는 회계이슈(예: 특정 프로젝트 손실 반영 등)를 선제 보고합니다. 또한 **사업부서(상선, 특수선 등)**와 긴밀히 협업합니다. 각 사업부 프로젝트 매니저(PM)로부터 **공정률, 예상원가 정보**를 받아 매출/원가 인식에 활용하고, 사업부 단위 손익을 공유하여 수익성 개선 논의를 합니다. **원가관리팀/경영기획팀**과도 협업하여 제조원가 배부, 예산 대비 실적 분석 등의 자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재 부서**는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 관리 측면에서 회계팀의 파트너로, 회계는 매월 재고실사와 자재비 산정에 자료를 받습니다. 또한 **인사팀**과의 연계도 있는데, 급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회계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등을 위해 인사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74]. **IT 부서(AX 사업부 등)**도 내부 이해관계자로, 회계 ERP(SAP FI/CO 모듈) 운영과 내부회계 IT 통제(ITGC) 지원을 담당하여, 회계팀과 시스템 개선을 협의합니다[75]. 한화오션의 경우 그룹 재경 조직(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무팀)과도 협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연결대상으로서 보고 패키지 제출이나 그룹 회계정책 공유를 받습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로는 **감사인(회계법인)**이 가장 밀접한 파트너입니다. 분기마다 자료 요청, 현장 방문을 대응하며, 질의에 답변하고 재무처리 적정성을 토론합니다[73]. 다음으로 **채권단/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과거 산업은행 관리체제에서는 주요 채권단에 월별 재무보고를 하였고, 현재도 대출약정 상 분기 재무제표 제출, 금융 covenant 준수 확인 등이 필요해 **은행 대외보고** 업무가 존재합니다[73]. 또한 프로젝트별 수출보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위해 무역보험공사나 보증은행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필요한 재무자료(재무제표, 프로젝트 원가내역 등)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등 정부당국**도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등 세무보고는 세무팀이 주로 하지만, 회계팀은 결산자료 제공과 조세감리 대응에 협조합니다. 아울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같은 기관에서 공공조달 관련 조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민영화 이후로는 크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투자자/주주** 측면에서는, 주식시장 공시를 위한 재무정보를 IR 팀과 공유하고 설명자료 작성을 돕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그룹 계열상장사와 별도 상장은 아니지만, 채권투자자나 신용평가사가 재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이에 응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및 고객사**도 넓게 보면 회계정보 이해관계자입니다. 예컨대 협력업체는 재무건전성을 보고 신용거래 한도를 설정하며, 주요 선주사는 조선사의 재무안정성을

신뢰도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발표되는 재무제표는 협력사와 고객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5.3 필요 역량 (기술·지식·소프트스킬):

- **전문기술 역량:** 회계원리 및 IFRS 지식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건설계약 수익인식 (IFRS 15), 리스 회계(IFRS 16), 총당부채 회계(IFRS 37) 등을 다루므로 관련 지식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업은 **프로젝트 원가회계** 비중이 높아 **원가회계/관리회계 지식**이 요구됩니다[67]. 원가배부, 공정별 원가집계, 예상원가 대비 실적분석 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므로 제조원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실무 도구로는 **SAP ERP(FI/CO 모듈)**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고[67], Excel 고급 기능 및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툴(Power BI 등)** 활용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67]. 실제 우대사항에 Power BI 숙련을 언급할 정도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밖에 외화거래가 많으므로 **환율 및 파생상품 회계** 지식, 그리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독해/소통 능력**도 있으면 좋습니다(영문 재무보고서, 외국인 감사 대응 등).
- **업무지식:** 조선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예컨대 선수금 제도, RG(환급보증), 중도금 보험 등 **조선업 특유의 금융거래 구조**를 알아야 관련 회계처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프로젝트로 인한 **공사손실충당금** 설정, **인도검사증명서(PGI)** 발급 시점 매출 처리 등 업종 특수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방산합정 매출의 경우 단계별 검수 기준이 있고, 정부 계약은 회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련 지식을 미리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내부 ERP와 **프로세스 흐름** (예: 구매 -> 자재 -> 생산 -> 원가 -> 회계로 이어지는 데이터 플로우)을 알아야 오류 발생 시 원인을 찾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스킬:** 첫째, **철저한 정확성과 꼼꼼함**입니다. 숫자 한 자리 오류도 용납되지 않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산 시 수천억원 단위 숫자를 다루지만, 세부 전표 한 장 한 장이 모인 결과임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기한 준수와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회계 마감은 **데드라인 중심 업무**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마감일정 내 여러 작업을 병행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윤리의식과 성실함**입니다. 회계는 **정직성이 생명**으로, 부정이나 분식의 유혹을 이겨낼 원칙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앞서 이해관계자에서 보았듯 다양한 부서·사람과 소통해야 하므로, 회계 비전문가에게도 쉽게 설명하는 능력, 타부서 요청을 조율하는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비용은 회계 기준상 이번 분기에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PM 에게 납득시키는 소통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문제해결 및 시스템 사고**입니다. 미처리된 오류전표나 복잡한 재무이슈가 터졌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시하는 능동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내부통제 상 발견된 취약점이 있다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업무 개선 역량**도 환영받습니다.

**5.4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회계직원의 성과는 주로 **정확성과 적시성, 개선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구체 KPI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결산 정확도:** **결산오류 제로**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감사인이 적발한 회계 오류 건수, 수정 분개 횟수 등이 사실상 마이너스 지표로 작용합니다. 결산 후에도 오차나 재작성 없이 한 번에 클로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결산리드타임**(마감 기간) 단축도 성과로 봅니다. 예컨대 월결산을 기존 7 일에서 5 일로 줄였다면 효율성 향상으로 인정받습니다.
- **보고 및 공시 준수:** **보고서 제출 시간 엄수**와 품질이 KPI 가 됩니다. 경영진 보고 자료나 그룹 보고 패키지를 마감 시한 내 오류 없이 제출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시기한 준수, 주총 이전 재무제표 확정 같은 **법정기한 준수율**도 평가 포인트입니다.
- **내부통제 및 감사 결과:**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 획득**은 기본이고, **감사 지적사항 최소화**가 중요 KPI 입니다. 만약 이전에 지적된 내용(예: 내부회계관리 미비점)을 금년에 개선했다면 성과로 인정받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 결과**(오류건수, 수정량) 등을 관리하며, 추세 개선 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 **원가/손익 분석 기여:** 단순히 장부를 닫는 것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인사이트 제공**도 회계팀 평가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선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해 경영층에 보고하여, 가격전략 조정에 기여"했다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분석 및 제안 실적**은 정량 KPI 로 잡기 어렵지만, 상사 피드백 등을 통해 질적 평가에 반영됩니다.
- **프로세스 개선:** **SAP 시스템 개선**이나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참여한 경우 가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회계결산 자동화 기능을 개발하여 결산시간을 단축했다거나,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면 성과로 간주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혁신 사례**를 포상하기도 합니다.
- **기타 KPI:** 팀워크와 교육 측면에서 **팀 내 지식공유 및 후배양성**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Tax Compliance** (회계와 세무 차이 조정, 세무신고 오류 여부 등)에서 문제가 없도록 한 점도 폭넓게 보면 책임범위입니다. 전사 KPI 로는 재무건전성 지표(부채비율 등)도 있으나, 이는 경영진 수준의 목표이므로 실무자의 직접 KPI 는 아닙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전반적으로 회계 직무 성과는 눈에 띄는 숫자로 평가되기보다는, “**큰 문제없이 재무업무가 굴러가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는 형태입니다. **Zero-error culture** 속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스태프 역할이지만, 작은 개선과 정확한 업무처리가 누적되어 회사에 큰 가치를 준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동기부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5 대표 업무 시나리오 예시:** 한화오션 회계팀 신입사원의 **1 개월 주기 업무 시나리오**를 가상의 타임라인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월초 (1~5 일):** 지난달 **월결산 마감**으로 분주합니다. 신입사원 A 씨는 선배 지시에 따라 **미결산 항목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건조 진행률 입력이 누락된 프로젝트가 있어 공정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데이터를 SAP 에 반영하자 해당 선박 프로젝트의 매출이 인식되고 손익이 업데이트 됩니다. A 씨는 팀 선배와 함께 부문 손익보고서를 작성하며, LNG 선 사업부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분기에 한 척 인도된 영향임을 밝혀내고, “LNG 선 1척 인도 완료에 따른 매출증가”라고 코멘트를 달아 CFO 보고자료에 반영했습니다. 4 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경팀으로 **연결재무 패키지**를 보내는 날입니다. 영문 재무제표 양식을 채워 그룹에 송부하고, 이어서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반기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5 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3 분기 리뷰 질의서**를 수령합니다. A 씨는 선배들과 분담하여 질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건조 진행중인 특정 선박에서 왜 이익률이 하락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원가팀으로부터 받은 정보(강재가 상승하여 예정원가 증가)를 토대로 설명을 작성했습니다.
- **월중 (10~20 일):** 결산이 끝난 비교적 한가한 시기입니다. A 씨는 차장을 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자산 관리 프로세스 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일부 개선점(예: 고정자산 실물 관리 절차)을 정리합니다. 한편 에너지플랜트사업부에서 새로 수주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SPC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회계팀은 해당 신설법인의 계정과목 체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A 씨는 **회계정책 메모**를 작성하여, IFRS 기준에 따라 SPC 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처리**하며 프로젝트 초기 비용은 개발비로 자산 인식한다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이 문서는 팀장 검토를 거쳐 각 관련 부서에 배포되었습니다[72]. 15 일 경에는 **재무실적 분석회의**에 회계팀도 참석합니다. 영업, 생산 부서장들 앞에서 회계팀장이 지난 분기 손익 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하고, A 씨는 보조자료로 준비한 원가분석표를 공유했습니다. 생산부서에서 “환율 상승이 우리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질문이 나오자, A 씨는 전년동기 대비 환율 효과가 +300 억원 정도였다고 수치 근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사내에서 **재무 data provider** 로 활동하는 것도 회계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월말 (2530 일):** 다시 결산 준비에 돌입합니다. A 씨는 **예상결산 일정표**를 업데이트하여 각 부서에 공지합니다. 25 일, 각 부서에 “이번 달 말 진행률 입력 및 비용확정은 27 일까지 완료 바랍니다”라는 메일을 보내고, **결산 초기 전표들**(감가상각비, 급여분개 등 매월 반복분개)을 생성합니다. 28 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선수금 중 일부 프로젝트에서 선주 측 사정으로 **환불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회계 이벤트**여서, A 씨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관련 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해당 선수금을 환불채무로 재분류하는 분개를 준비합니다. 30 일, 월말 환율이 발표되자, A 씨는 **전산에서 환가료 평가 프로그램**을 돌려 외화자산/부채를 일괄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총당금 계정**도 손익추정 변동에 맞춰 조정하고 [72], 모든 잔액을 검토합니다. 심야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시산표가 균형**을 맞추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회계팀 전원이 모여 **결산회의**를 개최, 각자 맡은 영역 이슈를 공유하고, 경영진 보고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번 달 특이사항으로는 앞서 발생한 선수금 환불 건이 있었기에, CFO 께 보고 시 “특정 프로젝트 취소에 따른 선수금 환급 처리로 일시적 현금유출 발생”이라고 설명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 **분기말 시나리오 추가:** 12 월 말이라면 위 업무 외에도 **연말감사 준비**로 분주할 것입니다. 재고자산 실사 입회, 손상검사(예: 보유 중인 드릴쉽 자산 가치평가) 등 비정기 업무가 겹칩니다. A 씨는 **감사 자료**를 마련하여 계약서, 전표, 증빙 등을 감사인이 쉽게 열람하도록 준비합니다. 또 모회사 한화 측에 요청받은 **내년도 재무 Forecast 자료** 산출에도 참여합니다. 이렇듯 분기·연도 단위로는 추가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위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 회계 직무의 하루는 **세부 전표 처리**에서 시작해 **숫자로 경영을 말해주는 일**로 끝납니다. 특정 사안을 깊게 파고들 때도 있고, 여러 부서 사이 조정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성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회계 직무 일상을 이해하고, 본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1] [2] [21] [22] [34] [35] [37] [43] [44] 한화오션, LNG 선에 특수선 호조까지...3Q 도 선방 < 방산·에너지 > 기사본문 - 디일렉(THE ELEC)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42768>

[3] [9] [13] [14] [23] [24] [27] [32] [33] [39] [40] [41] [42] CEOSCOREDAILY

<https://m.ceoscoredaily.com/page/view/2026012114254883004>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

[4] [5] [10] [11] [12] Korean Shipbuilders Secure 18% of Orders Last Month... Annual Chinese Volume Drops Sharply - The Asia Business Daily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10709203304033>

[6] [7] [45] China's Global Shipbuilding Order Share Falls to 65% in 2025 - Global Trade Magazine

<https://www.globaltrademag.com/chinas-global-shipbuilding-order-share-falls-to-65-in-2025/>

[8] 한화오션, 美가스텍서 '완전 무탄소 추진' LNG 선 '오션 1' 공개 - 해사신문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32>

[15] [16] [17] [18] [19] [38] 한화오션, 부채 늘었지만 부채비율 하락한 이유는

[http://www.datanews.co.kr/m/m\\_article.html?no=143830](http://www.datanews.co.kr/m/m_article.html?no=143830)

[20] 'LNGC' 호황에 한화오션 함박웃음...수주잔고 20 조 돌파 | 아시아투데이

<https://m.cartech.nate.com/content/2154349>

[25] [26] 한화오션, 해상풍력 시장 제대로 누빈다...2.6 조 규모 계약

<https://v.daum.net/v/yOcmYm6bTA>

[28] [29] [키플레이어 한화오션③] 조용한 '반전'... 바다 위에 번진 변화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303>

[30] [31] [한화오션] 한화오션 1 조 영업이익 달성... 조선 슈퍼사이클 최대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ilanxlyc/curiousir/contents/260227134319415by>

[36] 한화 리더 인터뷰 시리즈 | 한화오션 편 - 한화그룹

<https://www.hanwha.co.kr/newsroom/discover/view.do?seq=14034>

[46] [47] 한화오션, 여전한 이자부담...차입구조 장기화 '과제' - 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55433>

[48] (공개컨콜) [스코프노트] 한화오션 : 2025 년 실적 대폭 개선, LNG 선 ...

<https://www.finance-scope.com/article/view/scp202602090025>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

[49] [PDF] 한화오션(주)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507/&avefilename=65650\\_4176.pdf&filename=%ED%95%9C%ED%99%94%EC%98%A4%EC%85%98\(%EC%A3%BC\)\\_%EB%B3%B8\(2025-07-11\).pdf&idxno=4176](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507/&avefilename=65650_4176.pdf&filename=%ED%95%9C%ED%99%94%EC%98%A4%EC%85%98(%EC%A3%BC)_%EB%B3%B8(2025-07-11).pdf&idxno=4176)

[50] [59] [60] [70] [76] 한화오션 채용

<https://recruit-hanwhaocean.com/ko/good>

[51] [52] [53] [54] [55] [56] [57] [58] [61] 인재상 | 인재경영 | (주)한화

<https://www.hanwhacorp.co.kr/hanwha/hrmanagement/talentedhr.jsp>

[62] [한화오션] 2026 한화오션 온라인 채용설명회 안내드립니다. Begin ...

<https://www.instagram.com/p/DVpSMmGj4HP/>

[63] 안녕하세요, 뭉헨 한인학생회입니다. «한화오션 2026 신입사원 채용 ...

<https://www.instagram.com/p/DVi3WGwD-1X/>

[64] [한화오션 Global 채용 설명회 안내 @Online]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

<https://www.facebook.com/100054391742231/posts/%ED%95%9C%ED%99%94%EC%98%A4%EC%85%98-global-%EC%B1%84%EC%9A%A9-%EC%84%A4%EB%AA%85%ED%9A%8C-%EC%95%88%EB%82%B4-online-%EA%B8%80%EB%A1%9C%EB%B2%8C-%EB%AC%B4%EB%8C%80%EC%97%90%EC%84%9C-%ED%99%9C%EC%95%BD%ED%95%A0-%EC%9D%B8%EC%9E%AC%EB%A5%BC-%EC%B0%BE%EC%8A%B5%EB%8B%88%EB%8B%A4-%EC%A1%B0%EC%84%A0%ED%95%B4%EC%96%91%EB%B0%A9%EC%82%B0-%EC%82%B0%EC%97%85%EC%9D%84-%EC%84%A0%EB%8F%84%ED%95%98%EB%8A%94-%ED%95%9C%ED%99%94%EC%98%A4%EC%85%98%EC%97%90%EC%84%9C%EB%B6%81%EB%AF%B8-%EC%A7%80%EC%97%AD-%ED%95%9C/1154636236359424/>

[65] 2026 상반기 한화오션 신입사원 채용설명회 [New Wave on Ocean]

[https://www.youtube.com/watch?v=b8hPwJJ9\\_RQ](https://www.youtube.com/watch?v=b8hPwJJ9_RQ)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오션-회계

---

[66] [67] [71] [72] [73] 한화오션 채용

<https://recruit-hanwhaocean.com/ko/2026newrecruits>

[68] 한화오션(주) : 계열사소개 - 한화인 채용사이트

<https://www.hanwhain.com/web/meet/subsidiary/view.do?seq=586>

[69] 한화오션 채용 - 2026 년 진행 중인 공고 총 108 건 |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company/1392633/recruit>

[74] Hanwha Ocean [한화오션] 회계 전문가(서울, 대한민국) 채용중

<https://kr.linkedin.com/jobs/view/%ED%95%9C%ED%99%94%EC%98%A4%EC%85%98-%ED%9A%8C%EA%B3%84-%EC%A0%84%EB%AC%B8%EA%B0%80-at-hanwha-ocean-3924684202>

[75] 한화오션(주) 채용 | [AX 사업부] 내부회계 ITGC 경력사원 경력직 공고

<https://career.rememberapp.co.kr/job/posting/300163>